

“짜통은 물렸거라!” 나사식 관 이음쇠 품질혁신 기대

(주)영화테크,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가공생산 공장 건설



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화테크의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생산공장 전경

(주)영화테크(대표 김지연)가 국내에서 직접 ‘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’ 가공·생산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영화테크는 경남 진해에 위치한 영화금속(주)으로부터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(이하 ‘나사식 관 이음쇠’) 사업을 인수해 국내

생산(가공)을 목표로 KS, ISO 등 모든 품질인증을 취득하고 인천에 건설 중인 공장도 조만간 준공할 예정이다.

이에 앞서 영화금속은 주업종인 자동차부품 및 일반주물제품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 나사식 관 이음쇠 생산을 중단하고 올해 3월 영업권과 생산설비, 재고물량을 영화테크에 매각했다.



영화테크가 영화금속으로부터 인수한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가공·생산설비



영화테크가 영화금속으로부터 인수한 완제품. 현재 판매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

그동안 나사식 관 이음쇠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영화테크는 탭핑기 33대를 비롯한 가공 및 검사설비 일체와 완제품 300여 톤, 중국공장의 주물금형(소재금형) 설비 일체를 인수했다. 또 영화금속과 거래하던 31개 판매 대리점들의 영업권도 그대로 인수해 완제품을 현재 판매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.

영화테크는 인천시 서부산업단지 내에 약 3,306m²의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생산공장(사무동, 기숙사 포함)을 건설 중이다.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 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. 생산인력(약 35명)도 채용 중에 있다.

김지연 대표는 “현재 영화금속에서 인수한 가공·생산설비를 공장에 설치 중”이라며 “중국에서 소재를 들여와 나사식 관 이음쇠를 100% 직접 가공해 격이 다른 최고의 제품을

생산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특히 짝퉁 한국산 나사식 관 이음쇠가 판치고 있는 시장에서 영화테크의 직접적인 가공·생산은 공정하고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과 함께 배관자재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 현재 나사식 관 이음쇠 시장에서는 중국산 나사식 관 이음쇠를 수입해 국내 공장 KS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판매(텀핑)하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.

김 대표는 “소재는 중국에서 가져오지만 국내에서 직접 전량 가공·생산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”며 “앞으로 고객의 요구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🌐